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알고계시나요

최근 5년간 광주 주택화재 전체 12%·전남 17% 차지

5일부터 시행... 대부분 모르고 어겨도 제재 근거 없어

5일부터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에서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유독 큰 탓에 정부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주택에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다보니 제도 시행을 자체를 모르는데다, 설치하지 않더라도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일반주택도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신축 주택의 경우 2012년 2월 4일부터 적용돼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간 유효기간을 뒤 올래 2월 4일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주택 화재가 전체의 20%에 가깝고, 주택에서 불이 날 경우 발견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크게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광주에서 일어난 화재 5188건 가운데 12.4%인 645건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9명이 숨졌다. 전

체 화재 사망사고의 30%에 달한 수치다. 전남은 피해가 더 컸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1만262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주택화재는 17.4%인 2208건이었다. 인명 피해는 59명이 사망해 전체 화재 사망자 129명의 45.7%에 달했다.

'농도 전남'의 특성상 일반주택이 많은 데다가 고령비율이 높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일반주택 거주자들이 이같은 의무 설치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설치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 규정도 없다.

이 때문인지 소방당국도 일반주택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법은 시행됐지만 얼마나 의무설치 했는지 실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다.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광주지역 일반주택 18만9704가구, 전남 24만7735가구 등 총 43만여가구가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당 가구이지만, 소방당국은 설치 유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서구 상무1동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정모(53)씨는 "2002년 4월께 주택을 지어 살고 있지만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일반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규정돼 있지만 어디더라도 제재 방법은 없다. 강제할 경우 가계부담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 2025년까지 소방시설 의무 설치 95%를 달성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



“광주세계수영대회 화이팅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6일 광주공원 건너편 사무실 입구에 앞으로 2년 뒤 열릴 광주세계수영대회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고교 반배치 고사 놓고 혼선

진단 평가·적성검사 등 시행... 학부모 “사실상 반배치 고사”

“적성 검사가 반 배치고사 아닌가요?”, “국·영·수 시험 본다는 데 준비하지 않을 수 없나요?”

광주지역 고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이 ‘고교 반 편성 배치고사’를 놓고 혼선스러워하고 있다. 교육청의 ‘반 편성 배치고사’ 전면 금지 방침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일부 학교별로 치러지는 적성 검사나 학업성취도평가 등을 ‘반 배치고사’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광주 A고는 오는 8일 국·영·수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른다. 반 편성과는 관련 없는 학생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는 게 학교측 입장이다. 하지만 ‘반 배치고

사’로 받아들이는 신입생·학부모들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측은 이미 반 편성까지 끝내고 해당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태다.

B고는 오는 16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를 치른다. C고도 20일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국·영·수 과목에 대한 진단 평가를 실시한다. 두 학교 모두 ‘반 편성’과는 무관한 평가라고 밝혔다. 향후 수업 방향을 설정하거나 학생 상담을 위한 목적이란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학부모들은 고민스럽다.

‘성적이 반영되지 않지만 선생님들에게 첫 인상을 심어주는 평가인데 준비해야 하

지 않겠냐’거나 “반 편성은 아니라도 기숙사 입소 희망자가 몰릴 경우 관련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학교측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반 배치고사 금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입생들의 전반적 실력을 가늠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사립 간 학력 격차 등으로 자칫 성적이 좋거나 나쁜 학생이 특정 반에 몰리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67개 고교에 반 편성 배치고사를 전면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실시 여부를 학교별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산구에 ‘윤호 도서관’

한·중·일 팬들 생일 기념 성금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의 팬들이 6일 유노윤호의 생일을 맞아 광주에 ‘윤호 도서관’을 건립한다.

광주소회복지공동모금회는 팬들의 뜻에 따라 기탁된 성금으로 광주 광산구의 소외계층 밀집 지역에 마을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며, 오는 4월 유노윤호의 제대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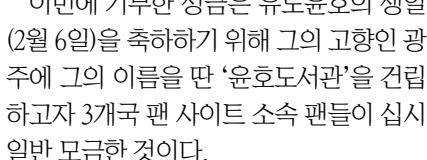
6일 광주소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에 따르면 유노윤호의 팬 사이트 ‘將愛MyYunho-(중국어)’, ‘KACHIKAJA Be with Yunho-(일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정윤호(한국)’ 소속 팬들이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은 유노윤호의 생일(2월 6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고향인 광주에 그의 이름을 딴 ‘윤호도서관’을 건립하고자 3개국 팬 사이트 소속 팬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것이다.

기부에 참여한 한 팬은 “이제 곧 제대를 앞둔 유노윤호의 생일에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자 그의 고향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됐다”며 “윤호도서관이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 윤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유노윤호의 팬들은 수년째 그의 생일 등에 맞춰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소회복지공동모금회에 누적된 기부금은 약 1억2500만 원에 달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6일 오후 여수에서 60대 남성이 뿌린 인화물질에 버스가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7 해질 18:07
달출 14:24 달짐 03:46

시설물 피해 주의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은뒤 흐림	-3/8	보성	맑은뒤 흐림	-4/8
목포	맑은뒤 흐림	-2/5	순천	맑은뒤 흐림	-2/9
여수	맑은뒤 흐림	-1/8	영광	맑은뒤 흐림	-5/4
나주	맑은뒤 흐림	-5/7	진도	맑은뒤 흐림	0/4
완도	맑은뒤 흐림	-1/9	전주	맑은뒤 흐림	-5/6
구례	맑은뒤 흐림	-5/8	군산	맑은뒤 흐림	-5/5
강진	맑은뒤 흐림	-3/8	남원	맑은뒤 흐림	-7/8
해남	맑은뒤 흐림	-3/8	축산도	맑은뒤 흐림	2/4
장성	맑은뒤 흐림	-5/6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5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3.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생활지수

니출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주간 날씨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	☁	☁	☁	☁	☁	☁
-2/7	-1/3	-5/2	-5/4	-4/5	-4/6	-3/6

“국가에 땅 빼앗겼다” 버스에 불 질러



6일 오후 여수에서 60대 남성이 뿌린 인화물질에 버스가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 시내버스 인명피해 없어

여수에서 60대 남성이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에 올라타 승객들이 타고 있던 버스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사진)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국가가 내 땅을 강제 수용했다. 분을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6일 오후 6시30분께 문모(68)씨가 여수시정 부근 정류소에 멈춰서 있던 시내버스에 올라 불을 질렀다. 20ℓ 들이 인화물질 2통을 내부에 뿌린 뒤였다. 승객과 운전기사 등 4명은 버스 뒷문으로 급

히 피하면서 연기와 유독가스를 일부 마신 것을 제외하고는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시내버스를 전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방향 현장에서 긴급제포된 문씨는 조사에서 “정부가 내 땅을 강제로 수용했다. 눈뜨고 가만히 당할 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문씨가 여수에 내려와 특별한 원한도 없는 시내버스 승객들을 상대로 이른바 ‘문지마’식 방화를 저지른 배경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계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